

# 스마트폰 시장 프리미엄화 가속… ‘폴더블’ 핵심요소 부상

플래그십 모델 중심 시장재편  
삼성·애플, 폴더블폰 정면대결  
화면주름 개선 등 기술력 성패

지난해 새로운 폼팩터 스마트폰 출시와 제품 수요 증가가 맞물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부품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다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은 폴더블폰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시장의 강한 수요와 경제 회복세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2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19%로 2위에 올랐다.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 5%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스마트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칩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보다는 AI 데이터센터용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다소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화면.

/차현정 기사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의 프리미엄화 흐름 속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폴더블폰을 비롯한 다양한 폼팩터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한 가운데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참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오는 9월 ‘아이폰 폴더블’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폰과 유사하게 소수의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사는 폴더블폰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화면 주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CES2026’에서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디스플레이가 올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갤럭시 Z 폴드 8’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갤럭시 Z 폴드 8’이나 ‘갤럭시 Z와이드 폴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 출시될 아이폰 폴더블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이폰 또한 폴더블폰에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주요 OLED 패널 공급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가 CES에서 공개한 폴더블 패널이 아이폰에 탑재될 것이라는 의견도 따랐다. 다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 행사에서 먼저 선보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이폰 폴더블에는 갤럭시 시리즈와는 다른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아울러 폴더블폰은 기술 완성도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램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고난도 제조공정이 맞물리면서 출고가인하여 가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폴더블 가격은 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부품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으로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프리미엄 제품과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사 hyeon@metroseoul.co.kr

## 기후에너지부 韓 ‘IRENA’ 의장국 지명

우리나라가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의장국 지위를 갖는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의 주재를 비롯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 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기후부의 이원주 에너지전환 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이억원 “‘사람 살리는 금융’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금융위원장〉

###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

이 원장, 공공기관 성과·책임 강조  
“관리대상 아닌 혁신 주체로 기능해야”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정책 취지와 설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금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에 지난 12일 개최한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융정책의 손과 발이며, 정책 성패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의 보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

는 금융 정책의 대 전환 방향에 맞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지역경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서민금융, 신금융, 캠퍼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회복하고, 실패와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점검하겠다”라며 “예보는 경제 안전판으로의 금융안정역할을,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금융에서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간의 중복 기능 조정, 협업과 시너지 또한 국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 기관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금융현장에서는 기관 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은 이어지고, 보호는 연결되며, 성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의 부족은 정책단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자 한다”라며 “금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공공기관 역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작년 말—이달 중순—’서 계속

## LH 수장 선임 ‘제자리’ 공급공백 장기화 우려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 유희부지 활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같은 민감한 사업이 주변 주민·종교단체·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째주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정은 다시 미뤄졌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주요 주체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최근에는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상욱 부사장도 사의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일 나온 ‘2026년 경제성장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6년 수도권 5만호 착공, 2만 9000호 분양을 계획했다.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로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상미 기자 smahn1@

## 구윤철, 英·日 재무장관 회동… 韓 WGBI 편입 등 협력 모색

오는 3월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영국·일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구 부총리는 G7 회의 기간 중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재무장관은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3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또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부는 양국의 경제발

전을 위해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양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타